

당신은 H양 명예훼손에서 자유롭습니까

김진명 / 내일신문 기자

매 일같이 스팸메일이 전자우편함을 가득 메운다. 스팸메일은 주로 영어교재나 OO보험 등 광고 물과 성인사이트 홍보물이다. 재미있는 건 다른 광고 물과 달리 성인사이트 홍보물은 꾸준히 제목을 바꾸어서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해지곤 한다. '오빠 나야' '연락 좀 하지 그래' 등등의 친근한(?) 제목들로 대부분 무슨무슨 비디오 입수라는 제목이었다.

'H양'도 그랬다. 또 다른 비디오가 하나 돌고 있다 보다 했는데 며칠 뒤 친구가 동영상 파일 하나를 전해 주었다. 시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H양 비디오 라고 했다. H양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순수한 이미지를 자랑하는 신인 연기자라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곁들여졌다.

며칠 뒤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H양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의 여성 연기자 함모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이 비디오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처음 비디오의 존재를 알린 스포츠신문이 함씨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비디오의 주인공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함씨는 사건의 발단이 된 두 스포츠신문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며 비디오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털어놓았다. 이어서 성인물 전문 여배우가 그 비디오는 사실 자신이 데뷔 초기에 찍은 성인물이라고 밝혀 함씨의 '무죄(?)'는 증명됐다.

그러나 함씨는 소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함씨의 '무죄'가 단지 시중에 떠돌았던 H양 비디오에만 국한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함씨 자신의 몰래 카메라는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다. 'O양 비디오' 'B양 비디오'가 전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 이래 온갖 비디오가 유행이다. Y L C 등 이름을 알 만한 여성연예인들은 한번씩 거론된다. 물론 비디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초기의 O양이 해외로 도피하다시피 했고 B양이 공중파 방송에서 완전히 밀려나다시피 한 데 비해 그 이후로는 간간이 여성들을 감싸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수많은 비디오가 떠돌고 있을 때 네티즌이라는 이름의 우리 모습은 어땠던가. 비디오의 주인공 H양이 함씨라는 잘못된 사실이 고정사실처럼 널리 유포된 데에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의 네티즌들이 큰 몫을 했다. 네티즌들은 H양이 누구인지 밝혀내라는 특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분주히 움직였고 보도가 나간지 반나절만에 H양이 함씨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스포츠신문의 홈페이지에 흐릿하게 게시된 사진 원본을 함씨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내고, 전자우편이며 메시지를 통해 돌려보고 H양에 대한 온갖 구구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심지어 그의 결백이 밝혀진 이후에도 입방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함씨에게 고소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과연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PPFK